

글로벌 코리아 : 세상의 중심, 동북아의 거점으로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세 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0~2020년 간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1~2% 수준으로 둔화되지만, BRICs 등 신흥 경제권은 6~11%의 고도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 중 동북아시아는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집중되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IMF는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9.6%에서 2015년에 2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 체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 초고속 교통수단의 발달로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 문화 등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경쟁력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이 가능하다. 경제·문화·정치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추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 및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륙·해양·항공을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 및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교통망 확충은 우선 유라시아대륙과의 육상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자 및 여객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동시에 동북아 및 글로벌 허브 공항·항만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거점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중단철도(TKR: 경의선, 동해선)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 및 몽골 횡단철도(TMR-TMGR)의 연결이 필요하다.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아시아 내륙 및 유럽과 직접 연계되므로 해상 운송(부산 ↔ 유럽 기준)에 비해 운송 비용은 25~35% 절감되고 운송 시간은 33~42%의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내륙 및 몽골, 시베리아 등의 자원 확보에도 유리해질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대륙 철도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특집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있다. 대륙 연결 철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와 한반도 고속도로망의 연계도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아시안 하이웨이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노선(AH1)과 부산~강릉~월산~러시아로 연결되는 구간(AH6) 등 2개 노선이 있다. 한·중·일·싱가포르 등은 동북아 허브 공항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의 푸둥, 일본의 나리타 및 하네다, 싱가포르의 창이, 홍콩의 첵랍콕 등 각국은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 주변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장과 함께 영종도 공항 복합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관광·레저 복합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즉, 영종도를 해양 레저, 테마파크, 위락·숙박, 쇼핑, 리조트, 교육, 병원, 문화 기능을 갖춘 공항 복합도시(Air City)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인근 항만의 허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 우선 부산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의 물동량 창출이 필요하다. 부산 신항 및 배후 단지에 해양 플랜트 기지, 수리 선박 단지와 같은 미래 해양 성장 산업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을 국제 해양·관광 도시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해륙 통합의 국제 관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조업 인프라 투자 강화

둘째,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011년 말 현재, 국내 산업단지는 총

948개소, 총면적 13억 5,700만㎡, 6만 4,000여 업체에 171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 초기에 개발된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57개소(국가 16개소, 일반 41개소)로 숫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6% 수준에 불과하지만 입주 기업체는 4만 859개사로 전체의 57%, 면적은 4억 3,900만㎡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조성된 지 20~3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슬럼화 및 야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우수 인력의 취업 기피 및 이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간접 고용 유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구 개발(R&D)에 따른 여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가 서비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려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반 강화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

셋째,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MICE 시설, 금융센터 등 오피스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및 한국전력 본사 이전 부지 일대를 교통·업무·쇼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TX(수서~삼성 연장),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지하철(2호선, 9호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장래 수도권 및 서울의 도시 공간 구

조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영동 대로 일대 지하 공간 개발로 환승역 및 쇼핑몰 등을 유치하며, 한국전력 본사 이전 부지에 호텔(MICE 시설), 오피스 빌딩 등의 공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의 유기적 연계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업무 및 관광 시설의 유치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추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북한 SOC 건설로 통일 기반 조성

넷째, 북한 내 교통, 산업단지, 전력 및 에너지, 주택 등 북한 인프라의 공급 확대에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낙후된 북한 경제의 재건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은 남북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내 인프라 공급은 무엇보다도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 10·4 선언에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항만 및 산업단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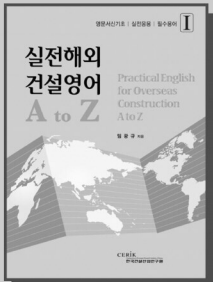
개발사업 등 인프라 건설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외건설 활성화 지속도 과제

다섯째, 내수 건설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인 해외건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03년 36.6억 달러에서 2010년 715.7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지원 강화, 중소 건설업체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등과 같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하에 전략적 해외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압축 성장 경험을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수화 설비 및 상수에서 폐수 처리까지의 물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소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의 해외 수출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경제·사회·문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거점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